영생에 대한 확신이 곧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이 우주만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영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확신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곧 자유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내 몸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의 영화를 꾀하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죽음의 원리

이 세상은 너와 나라는 상대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성 원리는 사망의 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상대성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성 원리 속에서 자연 법칙도 풀어지고 우주의 법칙도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성이라는 원리 아래에서는 인류가 하나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나를 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성원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었던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상대성에 점령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자연법칙을 풀려면 음양의 법칙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도 언젠가는 이 음양의 원리가 없어지고 무극의 시대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무극대도(無極大道)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음과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 가려면 음양이 없어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어져야 하며 너와 나를 의식하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이 우주만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 세상만물의 주체(主體)가 되는 것입니다. 음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되며 지상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마다 나이를 먹으면 죽겠거니 생각을 하니까 다들 죽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늙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니까 늙는 것입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나는 젊어진다' 하는 확신 속에서 움직이면 그날부터 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마음 먹는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 장교 시절에 젊은 청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니 전부 90점 아니면 100점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확신을 안가지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확신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끝까지 참고 믿어야 합니다. 몇시간 해 보고 팔랑개비처럼 안된다고 하면 확신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확신이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맡기는 단계가 옵니다. 확신하는 고로 모든 전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길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전체를 다 맡긴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가 곧 하늘나라 천군(天軍)이요, 천사(天使)들인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러므로 자유율법(自由律法)은 곧 군법(軍法)과 같습니다. 지휘관이 C고지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C고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A고지로 가야 되는데 왜 C고지로 가라고 할까?'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적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신 하나님은 마귀와 더불어 수천년을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지, 이럴 땐 어떻게 우회 공격을 해야 하는지 환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이긴자의 명령대로 움직여 주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함 속에서 나와

사망의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능력과 방법과 비결은 이긴자밖에는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은 확신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겼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영원무궁토록 맡긴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체(肢體)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난 것이 아닙니다. 원 상태로 돌아온 것 뿐이니 사람으로서 기본이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신이므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가슴에는 영생의 소망을 듬뿍 안고 뱃속에는 영생의 확신을 다져 넣으십시오. "나는 안죽는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야 만다. 나는 젊어진다." 아침마다 확신을 다지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 자체가 바로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와 같은 영생의 확신을 무산시키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나'라는 의식의 마음을 이기고 영생의 확신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결코 마귀가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꽉 차 있을 때에 영원토록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확신이 없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확신이 서 있는 자에게는 설교도 필요 없고, 별다른 지식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에는 함께 찬송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영생의 확신에 차있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무궁한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도성인신(道成人神)하시어 사람의 몸으로 친히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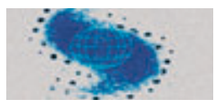
원래 인간의 마음은 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한에서 무한대에 이르는 무궁(無窮)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라는 의식이 그 마음을 점령함으로써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좁아지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마귀의 영으로 부터 완전히 석방된 이긴자의 생각은 무궁으로 부터 무궁에 이르는 넓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쾌감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마귀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뭇 인생들은 그 생각이 좁고, 고통과 괴로움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나'라는 의식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초초로 '나'라는 의식만을 버리고 또 버린다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피가 바뀌어야 확신이 생겨

물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성현들이 나와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를 향상 버려라', '무아(無我)경지에 이르러야 해탈(解脫)합니다.' 등등 좋은 말들은 많이 했지만, 인생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보았지만 무아경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라는 마귀의 피인데 되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바뀐 이긴자가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피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자에게 욕심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신이었던 것 처럼 사람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이 될 가능성은 99%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행복을 동경하고 있으며,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하며,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2)

창조적인 시작은 항상 그 자체 안에서 생겨나듯, 이 세상은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만들어졌다

인류의 정신적 소산물인 옛 기록(신화)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최초 원시상태는 어떻게 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는가?

신화에서는 창조 이전의 "태초의 둥근알"은 '제자신이 바퀴를 돌리는 수레바퀴'와 같이 스스로 창조적 격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현현시키는 신(神)이라고 한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그(아톰)는 태고의 바다(Nun: 나일 강)에서 솟아난 태고의 언덕(primevalhill)에서 여신의 도움 없이 자체 수정 방식으로 공기의 신 슈(Shu)와 그의 배우자인 습기의 신 테프눗(Tefnut)을 창조한다. 이어서 슈와 테프눗은 땅의 신 겝(Geb)과 하늘의 여신 누트(Nut)를 탄생시키며, 겝과 누트는 다시금 지하계의 신인 오시리스와 그의 배우자인 이시스 및 세트와 그의 배우자인 네프티스(Nephthys) 등을 낳는다.

위의 예는 창조적인 시작은 항상 자체 안에서 생겨난다. 이와 같은 견해는 형이상학적인 태극, 도, 기, 무, 일(一)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만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왔다는 동양적 사고와 통하는 점이 있다. 한편 서양의 유일신관에서는 알의 자발적 창조의 힘 또는 태극, 도, 기 등의 우주적인 힘은 유일신에게 그 자리를 넘겨준다. 초월적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이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유일신관은 우주의 기원을 초월적 하나님에게 떠맡긴다.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세계를 초월한 존재를 굳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성이 덜 깬 원시인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물들에서 추상하여 하나의 상징성(유일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성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이성작용의 구조는 그들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유일신관이 태동된 곳은 유목문명이 발달한 중동의 사막지대이다. 삭막하고 수시로 다변하는 사막지대에서 인간이 의지할 곳이란 하늘밖에 없다. 그들 눈에 하늘은 광대무변하고 유일 절대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며, 하늘이야말로 영원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포근한 안식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실로 어렵고 복잡한 인간사 모든 문제를 너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앞서 우리는 우주가 창조된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었다. 하나는 '우주의 자발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초월적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두 가지의 견해였다. 그렇다면 이즈음에서 앞으로 다가올 불사영생의 시대의 도래를 주도해 나가는 승리제단은 우주와 인간 기원의 문제를 어떠한 설명 체계 틀을 세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승리제단은 우주와 인간기원의 문제을 이렇게 설명한다

원래 이 우주는 영원영원 전부터 중성의 존재(하나님, 빛, 생명)와 음양의 존재(마귀, 음양의 빛, 사망)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6천년 전(성경의 연대와 동일시)에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 중성의 하나님(편의상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이 마귀의 영옥(靈獄)에 갇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연고로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고, 서로 죽고 죽이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유한한 비극적 인간 세계와 우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까지도 음양(+, -)의 구조로 묶어지게 되었고, 사망의 조류인 생성, 쇠퇴,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인간이 음양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에는 본래 시공을 초월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으로만 인간 속에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성을 상실하고 삼라만상 즉, 태양, 지구, 달, 산, 바다, 인간, 짐승, 나무 등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인간과 만물들은 똑같이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죄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던 그 주신(主神)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 잠자고 있는 본성으로 남아 있는 사실에 대하여 기절초풍할 따름일 것이다.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낭설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설명의 틀은 우주의 생성과 인간 존재의 비밀을 완벽히 설명해낼 수 있는 진리(이론) 그 자체임을 냉정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양과 음,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 등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귀가 영원 전부터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 창조신화의 몇몇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조선조 1675년에 쓰여진 사서 규원사화의 조판기(肇判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태고에 음양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혼몽한 채 오래 닫히어 있었다. 천지는 혼돈하고 귀신도 매우 슬퍼하고... 물과 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 밀치기 수백만 년이었다. 상계(上界)에는 마침한 큰 주신(主神)이 있어 환인이라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규원사화의 조판기에는 태고에 '귀신'과 '환인', 물과 불의 대립적인 존재가 서로 밀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경의 창세기에서와도 비슷하게 '흑암'과 '하나님'의 두 대립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귀의 대치 상태는 마치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두 세력간의 존립과 대치 상태와도 같았다. 피차간 암중모색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차에, 마침내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오듯이 마귀가 하나님을 급기야 포로로 사로잡고 마는 전(全) 우주적 대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마귀의 기습공격은 성경상에서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善惡果)를 따먹은 것으로 상징화하고 의미화하였다. 쉽게 해석해보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귀의 마음을 말한다. 본래는 선(중성) 그 자체였는데, 거기다가 악(음양)을 더하는 마음이 보태져서 두 마음(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하나님)의 상태에서 두 개(마귀)의 상태로 분리 분열된 것이다. 이 하나의 세계(속성)는 온 우주만물과 인간들 속에 아무도 모르게 잠재된 속성으로만 남아 있을 뿐, 철저히 마귀의 유린 속에 분열되고 분리된 세상, 오늘날의 현상계, 음양계, 죽음의 세상, 마귀세상인 것이다. 이 세계는 마귀(악)가 주도권을 잡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인 고로, 누가복음 10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하시면서 이 죄악 세상을 통렬(痛烈)히 한탄하였던 것이다.*

김주호 기자